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마음도리엔 한치 에누리도 없어

## 21년된 소아마비가 나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제 체험담입니다. 이 공부가 참으로 눈물겹도록 고마운 생각에서 이름모를 여러 도반들에게 참고가 될 듯 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제게는 몸이 불편한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태어나서 세 살이 되도록 혼자서는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말이 뇌성소아마비라고 했습니다. 청천벽력이었지요. 그로부터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며 구걸하느라 치

게 아님니까.

놀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우리 식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방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다른 분들도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 모습은 제 각각이지만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으면서 한기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용이고, 진실하게 마음으로 서로 통신이 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통신이 되면 작용이 따릅니다. 그러나 모두들 믿지를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놓는게 관 어떤 경계든 사랑에 꼬달리지 말고 들고 남을 믿고 관하십시오**

로에 매달렸습니다. 그래서일까, 나이 스물하살이 된 지금에 와서는 저 혼자 조금씩 걷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년한 딸자식의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을 지켜 보아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남들처럼 좀 의젓하게 걸을 수 있었으면...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소원이었지만 그 정도로 체념할 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못해요. 주인공 공부도 평상시엔 제법 주인공! 주인공! 하다가도 급한 지경이 되면 그냥 헛걸음 되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태양 빛을 쬐려면 문을 열어 놓고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해야지 문을 가려놓고 어떻게 쬐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이 빛을 쬐라, 쬐지 말라 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이 마음의 빛은 못 미치는 데가 없습니다. 굽은 구멍속이라도 관계없고 바다 밑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에 이웃 분의 권고로 스님을 뵈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님 앞에서 제 딸 자식의 걷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마음 좀 내주십시오 청을 드렸었지요. 스님께서 그때 저보고 주인공 법문을 해주시며 관하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후에 저희는 천도재를 지내고 저희 부부는 물론 딸 아이에게도 관하는 법을 일러주고 다 같이 스님께서 가르쳐주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믿고 좀 지혜를 발휘하라 이거죠.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관하면 누구나 생활속에서 닥치는 문제들을 타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 '관하라' 무슨 뜻인지요

'주인공, 남들처럼 의젓하게 걸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당신이 당신이 불편하지 않게, 어느 체념하게 걷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말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딸 자식도 그렇고 진실으로 믿고 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잠이 들었는데 한시경쯤 자났을까, 딸아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와서 저를 좀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이던가요. 발꿈치가 땅 바닥에 닿게 걸지를 못하던 아이가 도박도박 뒷걸음 붙이면서 걷는

조그만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교와 인연이 많습니. 외가쪽 할머니께서 스님이셨고 집안 분위기 따라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습니다. 불교를 믿는 일이 그냥 그런 것인줄 알다가 스님의 법문테이프와 책을 보고부터는 '믿고 관하라'는 말씀을 따라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관하라는 말씀을 제 자신이 아직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게 아닌가 느껴집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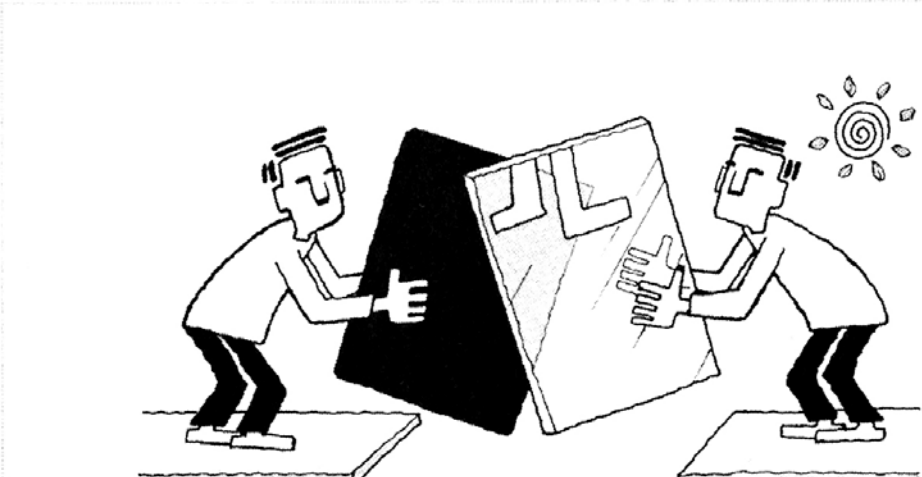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 "마음은 빛보다 빨라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 "온갖 번뇌 다 내탕...나온 자리에 되놓으세요"

중소기업을 하신다니 안팎으로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수록 믿고 관하여 할 것인데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놓는게 관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것들 다, 제 몸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하는 것 까지도 말입니다.

중소기업을 하신다니 안팎으로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럴수록 믿고 관하여 할 것인데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놓는게 관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것들 다, 제 몸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하는 것 까지도 말입니다.

마음은 빛보다 빨라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 온갖 번뇌 다 내탕...나온 자리에 되놓으세요

이 '나'라는 것은 심부름꾼입니다. 자생중생들의 심부름꾼. 이 중생들은 또 부처님의 심부름꾼이요. 그러니까 돌이키라 말입니다. 누차 얘기했다시피 이 마음은 제가 없습니다. 묘법이라는게 여기 있습니다. 마음은 제가 없어서 거기가 맡겨 놓으면 통신이 되어요. 통신이 되어서 응신으로 화해 나투어 줍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던 약사가 되어 나투어 주고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 해결책

을 마련하기 위해 법신을 내보내고... 그렇게 나투어 줍니다. 이런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양면이 같이 돌아가니까 아주 손쉽게 빨리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계든지 사랑으로 꼬달리지 말고 한 곳에서 들고 남을 굽은 마음으로 믿고 관하라 이것입니다.

으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묘법이지요. 그러기에 내가 한마음으로써 내면으로 통신이 되면 통신이 되는 그대로를 받아 바로 빛보다 더 빠르게 응신으로써 나투어 줍니다. 예를 들어 몸이 불구라서 발이 벌어졌는데 '아, 저건 너무 불쌍하지 않나!' 하고서는 주인공에 놓고 맡겼을 때는 그냥 한 가족 한 친척으로써 견뎌 집니다. 언젠가는 단전호흡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그만 몸을 부들부들 떨고 밟도 제대로 못먹는다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웬걸 그렇게 굶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그러느냐' 하고는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요. 지금은 관참아졌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8면으로 계속

## 생활 속의 불교 (150)

### 돌에서 피가 배어나올 만큼의 믿음이라면...

"먼저 우리는 우리 속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힘, 불성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정원사가 꽃나무를 가꾸듯이 불성을 살려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불성을 믿고 있다. 우리는 어려해살이 꽃나무가 계절따라 피었다 저도 이듬해 다시 꽃을 피울 힘을 그 나무 안에 지니고 있는 줄 알지만 자신들에게도 그와 같은 불성이 있다는 것은 믿고 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일단 몸을 바꾸게 되면 전생의 기억을 까마득히 잊고 말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가 다감생을 거쳐 지금 진화의 위대한 순간에 와 있음을 살피볼 수 있다면 꽃나무에 꽃 피우는 힘이 있음을 믿듯이 우리 속에 부처 될 힘이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화의 원동력, 그 불성을 믿어야 한다."

일제 중생에게 빠짐 없이 다 불성이 깃들여 있다고 부처님께서 누누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저 '그렇다더라' 하는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불자들이 밖에서 경배의 대상으로 찾고 그로부터 복과 가피를 바라보는 것은 바로 진성 믿음 때문이다.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한마디로 절절한 마음이어야 한다. 물이 끓어 오르는 것같은 그런 마음, 뼈에 사무쳐도록 애절한 마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듯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 남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 미쳤다'고 할만큼, 저 무심한 돌에서 피가 배어나리만큼 그렇게 사무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웬만큼 불심이 돈독하지 않고서는 그런 믿음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백천간에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배심, 죽든지 살든지 다 맡기겠노라는 그런 각오가 없다면 믿음을 말하지 말라. 캔센데 진성 믿음만 드러내 보이는 꼴이 될 터이니까.

내게 불성이 있음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실이지 수행이란 필요없다. 믿음 그것으로서 족하다. 수행이란 다름이 아닌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깨우쳐 가는 방편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고히 믿는 이에게는 삶이 그대로 수행이 된다. 생활 속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믿음

협찬 : 김 동 자